

파라과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11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 적	406천 km ²	G D P	302억 달러 (2014년)
인 구	6.9백 만명 (2014년)	1인당GDP	4,379 달러 (2014년)
정치 체제	대통령제	통화단위	Guarani(G)
대외 정책	경제실리외교	환율(US\$기준)	4,626 (2014년)

- ▷ 파라과이는 남미대륙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국으로 브라질, 아르헨티나, 볼리비아와 접경하고 있어 남미시장 물류허브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함.
- ▷ 한반도 2배 정도 면적의 국가로서, 인구의 96%가 스페인 및 파라니 원주민 혼혈로 이루어져 있고 스페인어 및 토착어인 파라니어를 사용하고 있음.
- ▷ 풍부한 삼림자원과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·목축업이 발달하였으며, 유리한 지형조건을 바탕으로 수력발전 잠재력이 풍부함.
- ▷ 여·야간 국정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카르테스 대통령의 안정적 정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, 토지개혁문제에 대한 이견 차이 및 파라과이 북부의 게릴라 활동으로 사회불안요소가 상존함.
- ▷ GDP 규모 기준으로 중남미 하위권에 속하며 대두, 소고기 등을 주로 수출하는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로서, 2013년 12월 카르테스 대통령 취임 후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에 복귀함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1	2012	2013	2014	2015 ^f
경제성장률	4.3	-1.2	14.2	4.3	3.0
재정수지 / GDP	1.9	-1.6	-1.4	-0.1	-1.5
소비자물가상승률	8.3	3.7	2.7	5.0	3.3

자료: IMF.

□ 수출감소, 작황부진 등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3%로 감소 전망

- 파라과이는 농업이 GDP의 20%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농산물 작황 및 국제시세 변동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.
- 2013년에는 농산물 작황 호조,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하여 14.2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.
- 2014년에는 정부의 긴축적 경제정책 및 농업생산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은 4.3%로 감소함.
- 2015년에는 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, 엘니뇨 현상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등에 따라,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감소한 3.0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세수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등 재정적자폭 확대 예상

- 2012~13년에는 경기부양, 대선·총선에 대비한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연이어 1%대의 재정적자 규모를 유지함.
- 정부의 긴축재정 노력이 지속되어 2014년 재정적자는 정부 재정적자 목표 상한선(GDP 대비 1.5%) 이하인 0.1%를 기록함.
- 2015년에는 부가가치세 도입, 개별소득세 법안 개정 등 세수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을 지속하고 있어 GDP대비 재정적자는 1.5%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**철저한 물가관리정책에 따라 중앙은행 물가목표 달성 기대**

- 2013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가격 하락, 아르헨티나산 밀수품 증가로 인한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2.7%를 기록함.
- 2014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, 대중교통 보조금 폐지 등으로 인한 공공 서비스료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상승한 5%를 기록함.
- 2015년에는 기업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철저한 물가관리 정책에 따라 3.3%를 기록하여 중앙은행 물가목표수준(5%±2%)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**기후조건 및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**

- 파라과이는 인구의 30%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, GDP의 약 20%를 농업이 차지하여 기후조건 및 국제원자재 가격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임.
- 또한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, 베네수엘라와 함께 남미공동시장* (MERCOSUR) 회원국으로 대 MERCOSUR 수출이 2012년 기준 57%를 차지할 정도로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.
- * 1995년 1월 남미의 자유무역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출범한 경제공동체로서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 정회원국 5개국과, 볼리비아, 페루 등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.

□ **취약한 인프라는 성장잠재력 저해요인**

- 내륙국인 파라과이의 취약한 인프라 수준은 동국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물류비용이 매우 높음.
- 세계은행의 글로벌경쟁력지수(2015-2016)에서 인프라 부문은 140개국 중 118위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 수준*이고, 취약한 인프라로 인해 야기되는 추가 물류비용이 연간 146백만 달러로 추정됨.

* 교통인프라 130위, 도로 138위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자연지리조건을 바탕으로 농·목축업 발달잠재력 풍부

○ 파라과이는 방대하고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으며, 풍부한 수자원과 산림자원*을 보유하고 있음.

* 초원과 산림지대가 각각 국토의 55%, 32%를 차지함.

- 국토의 40% 이상을 차지하는 남동부 지방은 비옥한 토지, 풍부한 강수량 등 농·목축업 발달을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구의 96%이 동 지역에 집중거주하여 노동력도 풍부함.

□ 유리한 지형조건을 바탕으로 수력발전 잠재력 풍부

○ 파라과이는 중남미 내륙국이나, 수력발전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어 수력발전 잠재력이 풍부함.

- 파라과이의 파라나 강 유역에 세계 2위 규모의 Itaipu 수력발전소(길이 7.37km, 높이 196m, 발전용량14,000MW)를 가동 중이며, 잉여전력을 브라질 등 인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.

□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남미 대륙의 물류중심지로 성장 가능

○ 브라질, 아르헨티나, 볼리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아르헨티나, 브라질 등 남미 주요 시장 진입을 위한 통로로 물류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.

- 주변국가 대비 무역규제, 세금제도 등 제도적 통제 정도가 낮으며, 살토 델 피이(Salto del Guaira) 등 주요 국경 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.

- 정부는 도로, 철도, 공항, 통신, 에너지 부문 등의 물류 인프라 개발을 위해 2014~15년 간 16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함.

다. 정책성과

□ 재정수지 적자 상한 설정 등 재정건전성 개선 제도 마련

- 카르테스 정부는 2013년 말 이래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재정수지 적자 상한 설정(GDP의 1.5%), 정부지출 증가율 제한(4%)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책임법(Fiscal Responsibility Law)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.

□ 중앙은행의 감독기능 강화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단계

-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기능 강화와 정부의 개혁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여 부실채권 비율이 2000년대 초반 20%대에 육박했으나, 2013년 11월 2.2%를 기록하는 등 10년 사이 급감함.

- 1990년대 초 적절한 규제 및 감독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1995년 이후 14개 은행과 11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 금융위기가 빈번하였음.

□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및 친(親)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추진

- 2013년 승인된 PPP 활성화 법안을 바탕으로 도로, 공항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점진적으로 인프라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.
- 광산개발을 포함하여 자원개발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고자 광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, 국제 원자재 가격 회복 시, 파라과이 석유·가스 부문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1	2012	2013	2014	2015 ^f
경 상 수 지	109	-245	616	0	-392
경 상 수 지 / G D P	0.4	-0.9	2.1	0.1	-1.9
상 품 수 지	777	501	1,583	1,594	932
수 출	12,500	11,515	13,444	13,452	11,510
수 입	11,723	11,014	11,861	11,858	10,578
서 비 스 수 지	-103	-100	-148	-102	62
소 득 수 지	-564	-632	-814	-931	-990
외 환 보 유 액	4,950	4,557	5,556	6,669	6,528
총 외 채 잔 액	5,918	16,036	15,961	17,553	17,037
총 외 채 잔 액 / G D P	24.6	64.4	56.4	59.3	55.8
D . S . R .	5.5	14.2	10.9	11.3	12.1

자료: IMF, OECD, EIU.

□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전환

- 파라과이는 콩, 육류, 목재 등을 수출하고 소비재, 석유관련 제품 등을 수입하는 국가로서, 농산물 수출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,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.
- 2013년에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품작 등으로 인한 수출 급증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2.1%를 기록함.
- 2014년에는 농업 부문 수출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 하락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중이 0.1%로 감소함.
- 2015년에는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악화 및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수입량 증대로 GDP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-1.9%로 적자전환될 것으로 보임.

□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외채상환능력 개선

- FDI 유입 증가로 2015년 외환보유액은 65.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도 11% 내외를 기록하는 등 외채상환 능력은 양호한 수준임.

Ⅲ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야당과의 국정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일련의 개혁안 국회 통과

- 2013년 8월 대선에서 중도우파 오라시오 카르테스(Horacio Cartes) 대통령이 당선되어 공공부문 개혁, 공기업 민영화, 인프라 및 인적자본 투자 등의 개혁을 추진함.
 - 카르테스 대통령은 취임 전 제 1야당인 중도파 급진정통자유당(PLRA) 및 중도좌파연합과 국정운영협약(Governability Pact)을 체결하는 등 파라과이 개혁을 위한 정치적 지지 기반 마련에 힘을 기울임.
 - 취임 1년 만에 재정책임법(Fiscal Responsibility Law) 및 인프라부문 투자를 위한 PPP 활성화 법안, 농업 부문 과세 등 일련의 개혁안을 통과시켰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토지개혁 문제, 게릴라 활동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

- 2014년 6월, 대규모 홍수로 전국적으로 3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특히, 수도 아순시온에서는 파라과이강 독에 주로 거주하던 빈곤 가구들의 피해가 매우 컸음.
- 농업 의존도가 높은 파라과이에서는 작물을 생산할 토지 부족으로 농민과 지주간 토지분쟁이 빈발한 가운데, 새로 집권한 우파 콜로라도당이 토지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토지개혁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지속됨.
 - 2012년 6월 토지분쟁으로 인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, 전임 루고(Fernando Lugo) 대통령이 탄핵된 바 있음.
- 카르테스 대통령 취임 이후, 파라과이 북부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게릴라 단체인 파라과이국민군(EPP)의 납치, 폭력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14년 7월초 북부지방 균병력을 50% 증강함.
- 2015년 10월 서비스업에 대한 10% 부가가치세 신 세법에 대한 반대시위가 발생하는 등 개혁법안에 대한 사회적 이견 차이가 존재함.

□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음

- 파라과이는 중남미 국가 중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2013년 기준 빈곤율은 23.8%를 기록하였으며, 특히, 지방의 빈곤율이 33.8%로 도시의 17.0%에 비해 2배 가량 높고 지니계수는 0.483에 달함.
- 현 카르테스 정부는 2013년 8월 집권 이후 “빈곤과의 전쟁”을 선포하며, 지방의 빈곤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함.

3. 국제관계

□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복귀

- 2012년 6월, 루고 대통령 탄핵으로 남미공동시장과 남미국가연합은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 정지 조치를 취했으나, 2013년 8월, 카르테스 대통령의 취임으로 자격 정지 조치를 중단함.
-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이 자국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베네수엘라 가입을 결정한 데 불만을 표시하며 복귀를 거부하여 왔음.
- 그러나, 2013년 12월 파라과이 의회가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가입을 승인하면서 관계를 회복함.

□ 통상과 투자 지역 다변화 동시 추진

-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과의 이념적 차이, 아르헨티나·베네수엘라와의 갈등 및 브라질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 등으로 인해 통상과 투자 지역 다변화를 추진 중임.
- 남미시장복귀 이후 브라질과의 무역증진, 역내 인프라투자 확대 등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고 있음.
- 2013년 5월에는 남미공동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*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하였으며, 태평양동맹과의 자유무역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- * 중남미 자유무역 대표 4개국이 무역자유화, 아태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등을 목표로 2012년 5월 결성한 연합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단기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

- 파라과이의 외채는 대부분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차관으로 구성된 공적 채무로서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, 최근 잇따른 국채발행으로 2015년 기준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은 12.1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- 2015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총 2.3억 달러(단기 1.2억 달러, 중장기 1.1억 달러)으로, 단기적인 외채상환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.

2. 국제시장평가

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	종전 평가 등급	
OECD	5등급	(2014.10)	6등급	(2013.10)
S&P	BB	(2014. 6)	BB-	(2011. 8)
Moody's	Ba1	(2015. 3)	Ba2	(2014. 2)
Fitch	BB	(2015. 1)	BB-	(2014. 1)

- 2014년 6월, S&P는 파라과이의 투자 증대 법안 시행,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시행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BB-에서 BB로 상향조정함.
- 2015년 1월, Fitch는 안정적 거시경제지표, 풍부한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감안 하여 BB-에서 BB로 상향조정하였으며, 3월 Moody's는 재정책임법 도입으로 인한 재정감독 강화, 세계개혁 추진 등으로 Ba2에서 Ba1으로 상향조정함.

2013년 1월, 최초로 국채 발행 성공

- 2013년 1월, 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최초로 발행(만기 10년, 수익률 4.625%)하였으며, 2014년 8월에도 10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국채 발행(만기 30년, 수익률 6.1%)에 성공함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**국교수립:** 1962년 6월 15일(북한과는 미수교)
- **주요협정:** 문화협정(1973년),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(1975년), 무역협정(1982년), 투자보장협정(1992년), 범죄인인도조약(1996년), 무상원조협정(2011년)
- **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**
 -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296백만 달러(수출 224백만 달러, 수입 72백만 달러) 수준으로 크지 않음.
 - 우리나라의 대 파라과이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9월 말 누계 기준 총 11건(신규법인 수), 7,447천 달러(투자금액)에 불과함.

<표 3> 한·파라과이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2	2013	2014	2015. 9	주요품목
수 출	160	203	224	174	자동차, 자동차부품, 철강관 등
수 입	106	75	72	7	곡식류, 기호식품, 합금철선철 및 고철 등
합 계	266	278	296	181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의견

- 파라과이는 농업이 GDP의 20%를 차지하여 농산물 작황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2015년에는 주요 인근 국가의 경기침체에 따른 농업 부문 수출 감소, 엘니노 현상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%로 감소할 전망이다.
- 세계개편 등으로 세수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, 임금인상 등으로 2015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한 1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이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개선, 공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, 개혁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이견 차이, 빈곤 및 사회 불평등 심화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음.
- 파라과이의 외채 대부분이 공적 채무로서 외채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, FDI 유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파라과이의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보임.

조사역 장은진 (☎02-6255-5716)
E-mail: eunjin@koreaexim.go.kr